

팀 주치의의 역할

이경태 · 김기천 · 박영욱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노원을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주치의는 팀내에서 트레이너를 지도하며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궁극적으로 책임진다. 그러므로 평상시보다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아플 경우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1,7)}. 저자는 프로 축구팀의 주치의 경력, 훈련 및 시험 경험과 대한축구협회의 의무분과위원으로서 도핑, 의무 행정등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 주치의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팀 주치의의 책임 (Responsibility of team physician)

팀 주치의는 트레이너의 감독 또는 조연자로 역할을 한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트레이너와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상, 체력관리, 재활치료에 관여하며, 수술적 치료를 직접 시행하거나 감독하는 일을 한다. 팀의 성적 향상, 경기력 유지를 위해 감독, 코치등의 지도, 전술, 정신 교육등도 중요하지만, 부상 방지, 부상 선수의 빠른 회복을 통한 경기력 손실의 최소화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팀 주치의는 각 선수들의 병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질환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적 견지에서 조언을 하고 이학적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팀이 이동할 경우 전지 훈련을 하는 나라의 특수 질환이나 발생 가능한 질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며, 선수 개인의 부상 기록과 부상 일지를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도핑 검사등에 대비해서 선수들이 복용하는 약물, 한약재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가능하면 연습, 경기, 훈련등에 참가해야 하며 부상 선수가 발생할 경우 선수들의 경기 중단, 복귀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1,10)}. 이를 위해 부상, 응급 처치, 후송, 최종 처치, 재활등을 담당하는 요원의 배치, 적절한 의료인 및 의료 기관, 재활 기관을 설정해야 한다^{2,8)}.

주치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기 위해서는 의사로서의 전문성 뿐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서 역할도 중요하다. 소속팀의 역사 및 감독, 코칭 스태프의 개인 사항을 알아야 하며, 모든 선수들

의 이름 및 전력을 알아야 한다. 필요시 트레이너를 포함한 다른 운영진과 협조 교육자, 조력자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스포츠 손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⁹⁾.

팀 주치의는 현대 스포츠가 전문화되고 발달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학의 지식과 술기, 축구에 대한 충분한 지식, 주치의로서의 경험이 필요하다.

“주치의”의 조건 (Attributes of a good Team Physician)

대부분의 손상이 근골격계 질환이므로 “정형외과적”인 진단과 치료에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훈련이나 시험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감기등의 상기도 감염, 소화기 질환, 천식, 두통등의 내과적 질환에도 익숙해야 한다. 또한, 축구 시험이나 전지 훈련등에 참여할 시간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대화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사회성(affability: general social skill)이 중요하고, 선수나 코치, 구단으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선수들이 필요한 곳에 항상 상주해서, 쉽게 선수들의 불편을 들을 수 있도록 유용성(availability)이 있어야 한다. Tom 등⁵⁾은 “적시(適時), 적소(適所), 적인(適人)”(‘the right person,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을 언급하면서 이를 강조하였다. 셋째, 충분한 정형외과적 지식과 수술 능력(ability)을 갖추어야 한다.

행동 방침과 복장

팀 주치의는 의사, 팀의 일원, 팀의 후원자등의 여러 모습을 가지고 있다. 객관적 입장에 있지만 팀을 지지하는 주관적 팬의 입장이 될 수 있다. Mary⁴⁾는 이런 팀 주치의에 대해 10가지의 균형있는 자세를 권유하였다.

1. 바르게 행동하며 예외를 두지 말 것
2. 경쟁팀을 비방하기 보다 옹호할 것
3. 감독, 코치, 선수에게 존경을 요구하지 말고 우리나라에게 할 것
4. 충성심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 즉 팀의 필요에 따라 주치의가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5. 대화와 소통

통신저자: 김 기 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280-1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노원을지병원 정형외과학교실
TEL: 02) 970-8259 · FAX: 02) 970-8259
E-mail: kkc21c@dreamwiz.com

- 6. 높은 목표
- 7. 팀 주치의로서 역할 자체를 즐기기
- 8. 5 A를 명심한다.: Availability(유용성), Ability(능력), Affability(사회성), Advocacy(지지), Affiliation(연합)
- 9. 위험한 상황에서도 환자를 치료하기
- 10. 가족과 동료들을 잊지 않기

각 팀의 특징에 따라 정장 착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만, 대개 처음 선수들과 대면하는 경우는 정장을 하는 것이 좋고 좀 친숙해지면, 캐주얼 차림의 복장도 무난하다. 해외 전지 훈련시 팀 주치의 자격으로 이동할 때도 정장을 하는 것이 무난하다.

구단 행정팀과 감독, 코치, 팀트레이너와의 관계 설정³⁾

· 팀 트레이너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팀 주치의보다 선수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관찰할 수 있는 트레이너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절대로 반목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부상, 질환에 대해 트레이너와 일관된 계획과 처치로 혼선이 없도록 한다.

· 감독, 코치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팀 주치의도 다른 운영진과 함께 팀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승리를 얻는 공통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부상 선수의 관리에 있어 감독, 코치와 반목이 있지 않도록 하며 휴식 및 재활의 필요성을 설득, 설명해야 한다. 팀의 운영과 관계된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경기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최상의 팀이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 구단에서는 부상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으로 존경을 받고, 팀의 경기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팀의 재산인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한편, 팀의 정책이나 구단과 감독이나 선수들과의 대인 관계, 감독의 전술, 선수 기용에는 절대 중립적인 자세를 고수하여야 한다.

한국의 주치의 시스템과 문제점과 대안

축구의학은 스포츠의학의 한 부분인 현장의학으로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구단에서도 팀 주치의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많은 의사들도 축구 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직접 경기장에서 축구를 위해 개인적 시간과 열정을 희생하는 경우는 드물 뿐 아니라, 아직 정식으로 교육하는 국내 단체가 없다. 팀 주치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팀 주치의의 희생과 노력, 열정에 의존하기 보다 공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경제적 보장등이 필요하며 축구로 인한 스포츠 손상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 관리하는 전문 양성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⁶⁾. 단기적으로는 부주치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일정기간 경험을 쌓은 뒤, 다른 팀의 주치의로 되는 것이 현실적 대안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Albright JP and Noyes FR: Role of the team physician in sports injury studies. *Am J Sports Med*, 16 Suppl 1: S1-4, 1988.
2. Arnheim AD and Prentice WE: *Principles of athletic training*, McGraw-Hill: 18-34, 2000.
3. Boyd JL: Understanding the politics of being a team physician. *Clinics in Sports Medicine*, 26: 161-+, 2007.
4. Ireland ML: Balancing life as a team physician. *Clinics in Sports Medicine*, 26: 187-+, 2007.
5. Kuster T, Knitter D and Navitskis L: Accessibility of the team physician. *Clinics in Sports Medicine*, 26: 149-+, 2007.
6. Lemak L: Financial implications of serving as team physician. *Clinics in Sports Medicine*, 26: 227-+, 2007.
7. Patterson PH and Dymont PG: Being a team physician. *Pediatric Annals*, 26: 13-&, 1997.
8. Quinby JS: Establishing a new practice as a team physician. *Clinics in Sports Medicine*, 26: 181-+, 2007.
9. Rehberg RS, Rehberg JS and Prybicien M: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the team physician. *Clinics in Sports Medicine*, 26: 243-+, 2007.
10. Whiteside J and Andrews JR: Trends for the future as a team physician: Herodicus to hereafter. *Clinics in Sports Medicine*, 26: 285-+, 2007.